

#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0

(2020년 3월 5일 목요일)

##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5.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http://www.scdc.or.kr) · [www.seoulhealth.kr](http://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516명 추가 확진으로 총 5,328명, 서울시 105명 중 26명이 퇴원
- 코로나19의 실크로드, 중국에서 중동·유럽으로 확산
-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와 경영안정화 위한 추경안 내일(3.5.) 국회 제출 계획
- 서울시립병원 포함 서울 주요 병원들, 대구경북 확진자 입원, 의료진 파견 등 긴급지원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 심리방역 위한 마음백신 7가지 제시
- 서울시, 개학연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추가
- 2020년도 신입 공중보건 의사 742명, 코로나19 현장 배치 대비 직무교육 실시

### 1. 발생 현황

#### 코로나19 상황판

질병관리본부 '20.03.04. 00시 기준

	확진자	사망자	퇴원	의사환자**	검사중	결과음성	자가격리자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105	0	26	24,708	4,414	20,294	4,245	2,243	2,002
전국	5,328	32	41	136,707	28,414	102,965	-	-	-
전세계	93,172	3,203	-	-	-	-	-	-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05. 8시 기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서울시 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기반 작성

작성자: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연경 연구원/ ☎ 02-2276-8792 (unirtv@seoulmc.or.kr)

- 서울시 전일 대비 7명 추가 환자 발생, 총 105명 보고됨 (3.3. 확진자 1명은 타시도 이관으로 서울시 확진자에서 제외됨)
  - 입원환자 79명, 격리해제 26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환자 99명
  - 국내 사망자는 32명으로 치명률은 0.6%로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 기준 서울시 사망자 없음
  - 서울시 신규확진자 감염경로는 현재 파악 중이며, 환자 구성은 다음과 같음

계	대구방문	확진자 접촉	해외유입	조사중
7	1	3	1	2

· 성동구 A아파트 집단 감염관련 확진자 2일째 보고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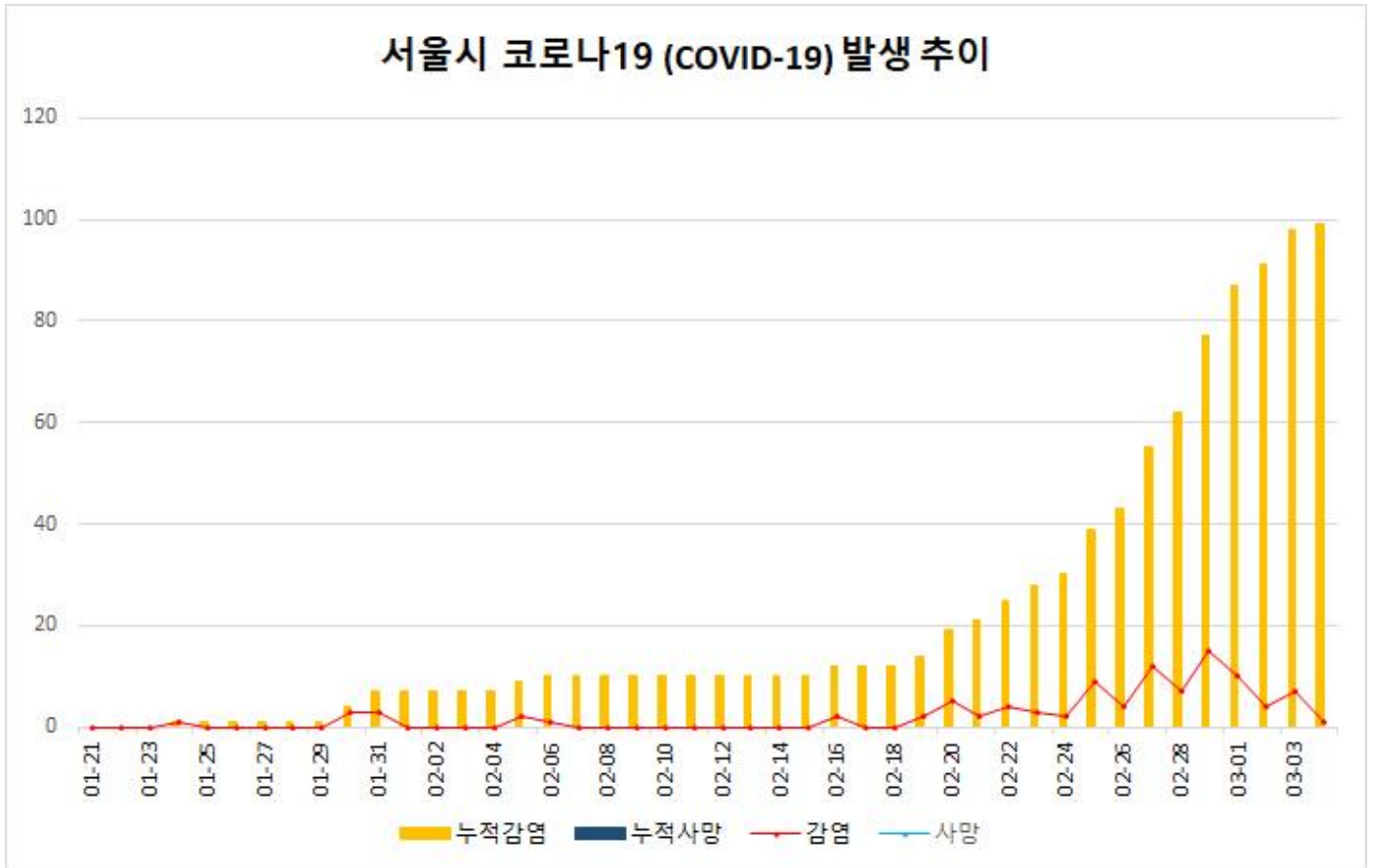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5. 8시 기준)

	구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자가격리현황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계	격리 중	격리 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계	감시중	감시 해제	진료	검체검사	X-ray
서울시	3.3.(화) 16시 기준	98	72	26	21,522	4,308	17,214	4,103	2,472	1,631	1,309	807	37
	3.4.(수) 16시 기준	105	79	26	24,708	4,414	20,294	4,245	2,243	2,002	2,211	1,464	21
	증감	7	7	-	3,186	106	3,080	142	▲229	371	902 (41%)	657 (44.9%)	-4 (▲19%)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출처: 의료방역반 일일상황보고 (3.2. 18:00 기준)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2020.3.4.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발생 추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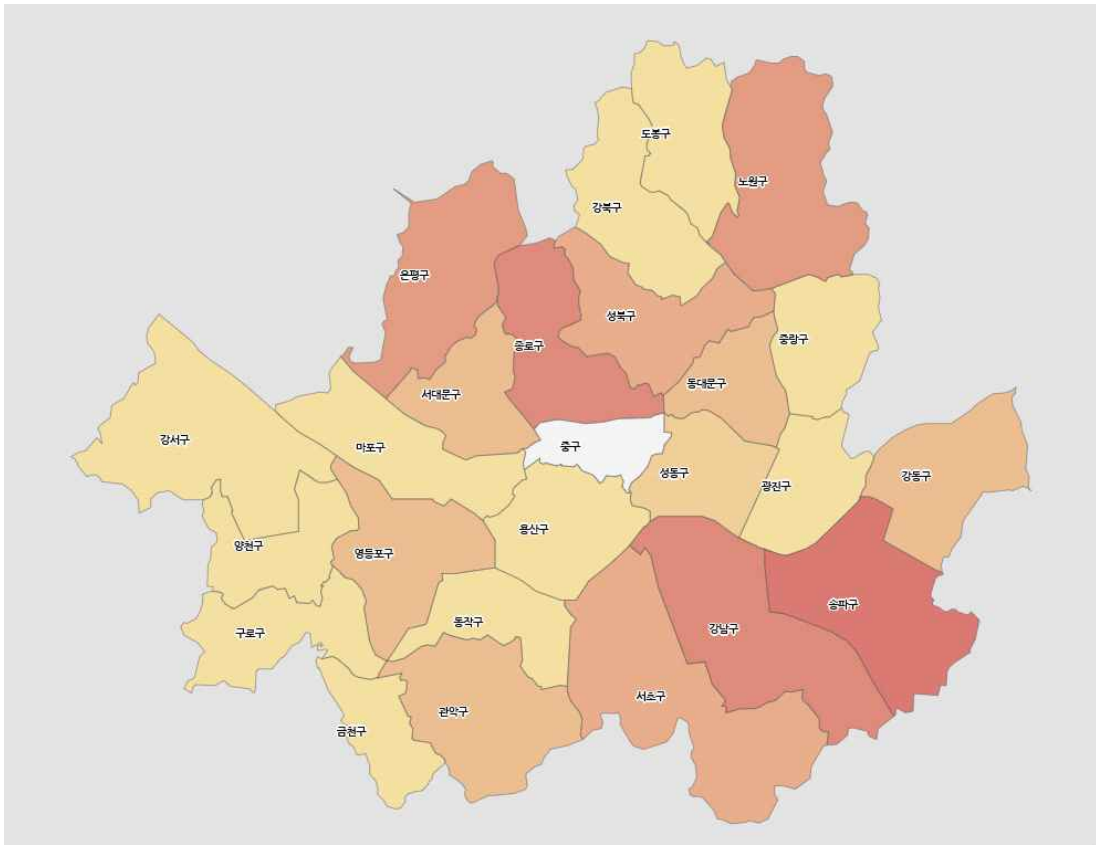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105명(종로11, 성동3, 동대문4, 중랑2, 성북5, 노원8, 은평7, 서대문4, 마포1, 양천2, 강서2, 구로1, 동작1, 관악4, 서초5, 송파12, 강동4, 강남9, 광진2, 영등포4, 도봉1, 금천1, 용산1, 강북2, 기타9(타시도 이관))
- 총 24개구에서 확진환자 발생함.(\*강북구, 용산구 추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송파	종로	강남	노원	은평	관악	강동	서대문	영등포	성북	서초	동대문	성동	중랑	강서	광진	동작	양천	마포	구로	도봉	금천	중구	강북	용산	기타	계
확진환자	12	11	9	8	8	4	4	4	4	5	5	4	3	2	2	2	1	2	1	1	1	1	-	2	1	9	105
환자	-	-	-	-	-	-	-	-	-	-	-	3	-	1	-	-	-	-	-	-	-	-	-	2	1	-	7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분포

● 서울시 확진자 건강상태(2020.3.4. 18:00 기준)

(단위 : 건)

환자구분			상태구분 (퇴원환자제외)					
계	환자	의료인	소계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	*확인증
103	101	2	79	64	11	3	1	0

\*확인증 : 의료기관 감염관리실로부터 수합요청

● 서울시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2020.3.3. 18:00 기준)

(단위 : 건)

합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78	41	32 <sup>1)</sup>	6	3 <sup>2)</sup>	37	5	6	5 <sup>*</sup>	21

1)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증가(1개소): 30 → 32개소, 강북·중랑구

2)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설치(3개소): 은평병원, 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3.3.)

※ 어린이·은평병원(2개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로 전환되어 국·공립병원 집계에서 제외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3. 18:00 기준)

(단위: 개소)

자치구 선별진료소			※ 코로나19 상담소 5개소 중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합 계	보건소 내	보건소 외	
33	32*	1	

\* 25개구 중 성북·금천·노원·은평·송파·중랑·강북구 2개 운영 그 외 자치구 1개 운영 (중랑·강북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 자치구 보건소 운영 현황(2020.3.2. 18:00 기준)

(단위 : 건)

날짜	진료		검체		X-ray	
	금일(3.2)	누 계	금일(3.2)	누 계	금일(3.2)	누 계
2020.3.2.	2,211	29,010	1,464	14,946	21	907

● 차량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 현황(2020.3.3. 18:00 기준)

(단위 : 건)

구 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3. 3.)	누계	금일(3. 3.)	누계	
계	212	205	212	205	
은평병원	65	65	65	65	
구 소방학교	48	42	48	42	
잠실주경기장	99	98	99	98	
이대서울병원	예정	예정	예정	예정	3.5. 개소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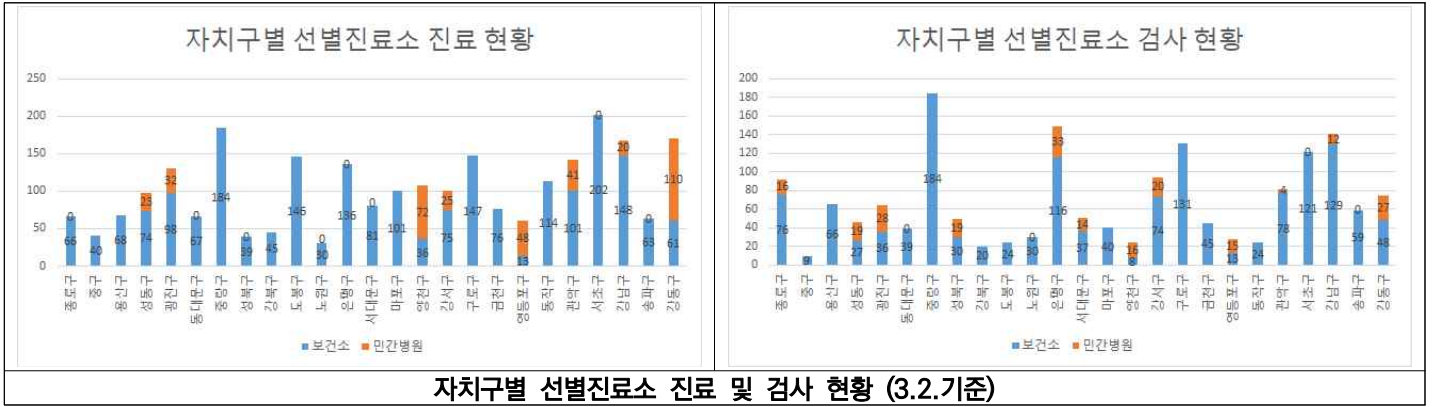
● 의료기관 운영 현황(2020.3.3. 18:00 기준)

(단위 : 건)

구 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3.3)	누계	금일(3.3)	누계	
계	850	24,617	566	8,699	
국가지정	88	4,373	69	1,993	
지역거점	327	3,982	228	1,781	
국공립병원	64	1,586	46	1,224	
민간병원	371	14,676	223	3,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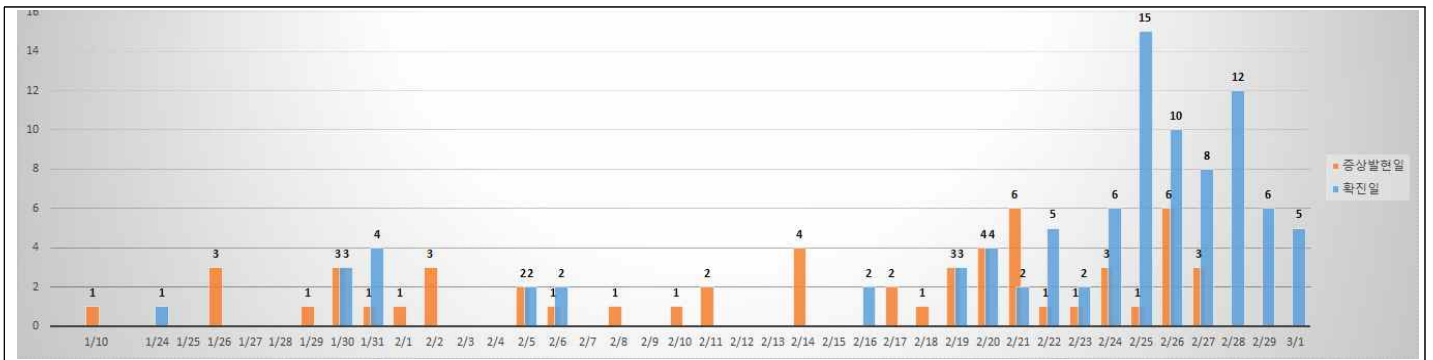
\* 국공립병원의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은 3.3부터 차량이동선별진료소로 변경, 북부병원은 2.29부터 미운영

● 자치구 선별진료소 세부운영 현황비교(2020.3.3. 18: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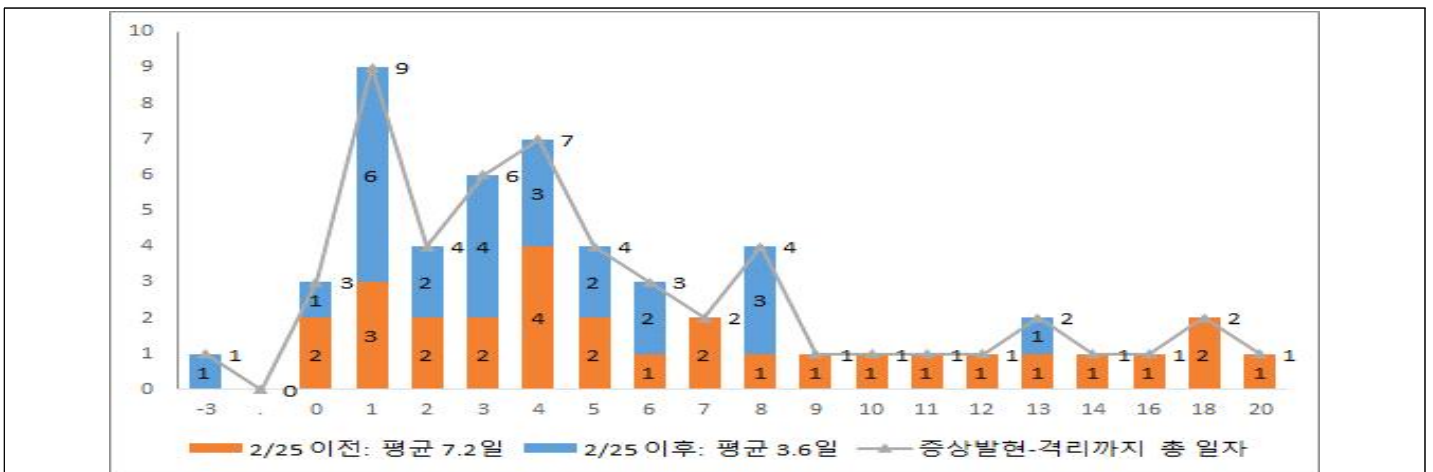
-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의 경우, 25개구 자치구 중 3곳(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은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약 65%를 진료하고 있음. 양천구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영등포구는 여의도성모병원, 성애병원에서, 강동구는 중앙보훈병원,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검사 시행은 25개구 자치구 중 2곳(양천구, 영등포구)에서 선별검사의 약 50%를 시행하고 있음. 각각의 자치구에 이대목동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등 2~3차 의료기관이 위치하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보건소 선별진료소보다 민간병원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원인에 대해서 추후 연구 및 파악이 필요함. 이를 근거로 자치구의 선별진료소의 기능과 효과를 분석하여, 자치구 선별진료소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서울시 의료전달체계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2020.1.26.-3.2.)의 증상발현일-확진일까지의 시간간격 추이 유행곡선



- 코로나19 첫 발생 건보다 최근 증상발현일에서 확진일까지의 시간간격이 줄어들고 있음

●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2020.1.26.-3.2.)의 증상발현일-격리시작일까지의 시간간격



- 코로나19 첫 발생 건보다 최근 증상발현일에서 격리시작일까지의 시간간격이 줄어들고 있음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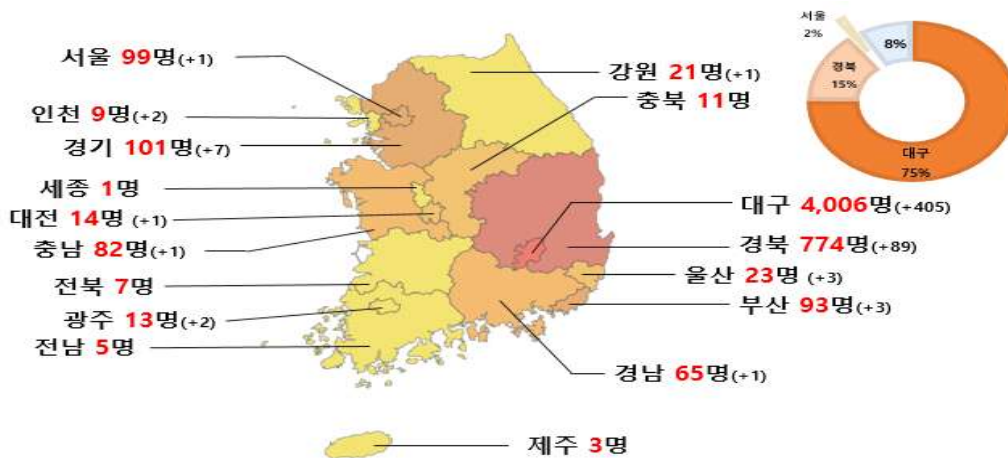
- 국내 확진자는 5,328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516명 추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는 32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4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64%으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65.6%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34.4%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4.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3.(화) 0시 기준	125,851	4,812	34	4,750	28	121,039	35,555	85,454
3.4.(수) 0시 기준	136,707	5,328	41	5,255	32	131,379	28,414	102,965
증감	10,856 (7.9%)	516 (9.7%)	7 (10.8%)	505 (9.6%)	4 (12.5%)	10,340 (7.9%)	▲7,141 (▲25.1%)	17,481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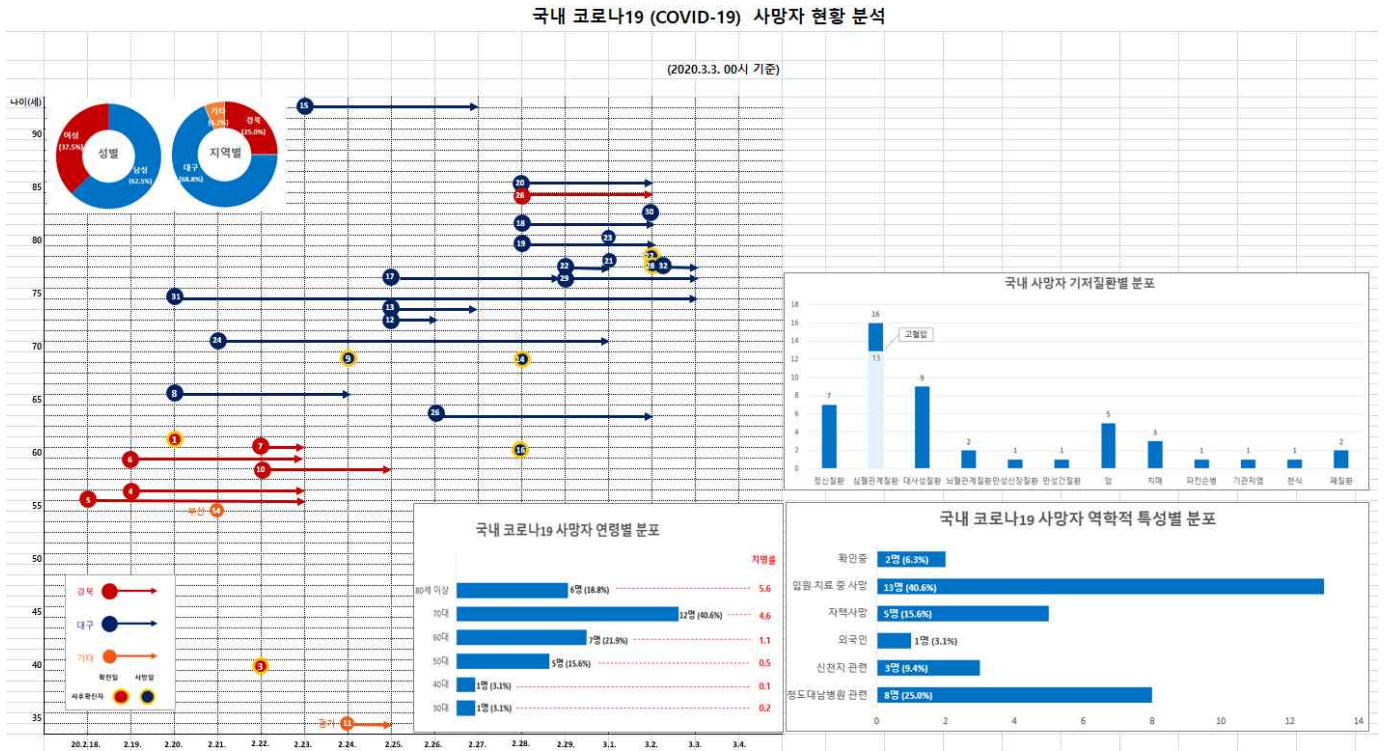
- 새롭게 확진된 환자 516명의 현황

지역	확진환자			주요 기타 유행
	누계(명)	신규(명)	(%)	
서울	99	(+1)	1.9	은평성모병원(14명), 성동구아파트(12명), 종로노인복지회관(6명), 신천지(2명), 명성교회(3명) 관련 등
부산	93	(+3)	1.7	온천교회(33명), 확진자 접촉자(26명), 신천지(10명), 대남병원(2명) 관련 등
대구	4,006	(+405)	75.3	신천지(2,583명), 대남병원(2명) 관련 등
인천	9	(+2)	0.2	신천지(1명), 확진자 접촉자(1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광주	13	(+2)	0.2	신천지(8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대전	15	(+1)	0.3	확진자 접촉자(8명) 관련 등
울산	23	(+3)	0.4	신천지(11명) 관련 등
세종	1	-	0.0	신천지(1명) 관련 등
경기	101	(+7)	1.9	신천지(18명), 수원생명샘교회(6명), 기존 해외유입(6명) 관련 등
강원	21	(+1)	0.4	신천지(11명) 관련 등
충북	11	-	0.2	신천지(5명) 관련 등
충남	82	(+1)	1.5	천안시 운동시설(80명), 신천지(1명) 관련 등
전북	7	-	0.1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1명), 신천지(1명) 관련 등
전남	5	-	0.1	신천지(1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경북	774	(+89)	14.5	신천지(315명), 청도대남병원(115명), 성지순례(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24명), 경산 서란요영원(13명), 경산엘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명), 김천소년교도소(3명), 한국전력지사(4명) 관련 등
경남	65	(+1)	1.2	신천지(22명), 거창교회(10명), 한마음창원병원(6명), 부산 온천교회(2명) 관련 등
제주	3	-	0.1	-
총계	5,328	(+600)	100.0	전국 환자 중 신천지 관련 2,992명(56.2%)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2020.3.4.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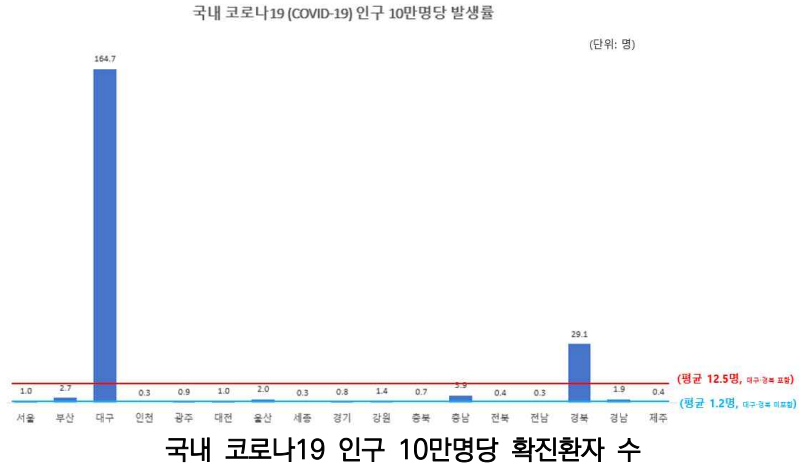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COVID-19) 사망자 현황 분석

- \* 국내 사망자는 대구 중심으로 사흘째(3.1~3.3) 확진자 사망사례만 1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국내 사망자는 **32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4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64%**로 보고됨.
- \* 금일 사망한 4명 모두 대구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모두 기저질환(당뇨,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성별로는 남성 20명(62.5%)으로 여성 12명(37.5%)보다 많았고, 사망자는 대구 22명(68.8%), 경북 8명(25.0%)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기타 2명(6.2%)은 각각 부산, 경기지역에서 발생함.
- \* 연령대는 70대에서 13명(4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대 7명(21.9%), 50대 5명(15.6%), 80대 4명(12.5%), 40대 이하 2명(6.3%), 90세 이상 1명(3.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치명률은 108명의 확진자 중 6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5.6%, 70대가 4.6%로, 7080 고령층에서 지역사회 전파로 인하여 높은 치명률을 보임.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2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혈관계질환(50.0%), 정신질환(21.9%), 암(15.6%), 치매(9.4%) 순으로 확인됨 (기저질환 중복 반영됨).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역학적 관계로 보면 초기 사망자의 경우 청도대남병원 및 신천지대구교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3.3. 00시 기준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 13명(40.6%), 청도대남병원 관련 8명(25.0%), 자택사망 5명(15.6%), 신천지 관련 3명(9.4%) 순으로 나타남 (※ 추가 조사 중인 사항도 있으므로 변동 가능).
- 국내 사망자는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발생이 되면서 지역내 의료과부하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고 있으며, 병상 배정 문제도 속도감있게 해결해야 지역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음.
- 이에,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이 먼저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판>이 개정됨에 따라 확진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통하여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이 정비가 됨에 따라 국내 사망자 발생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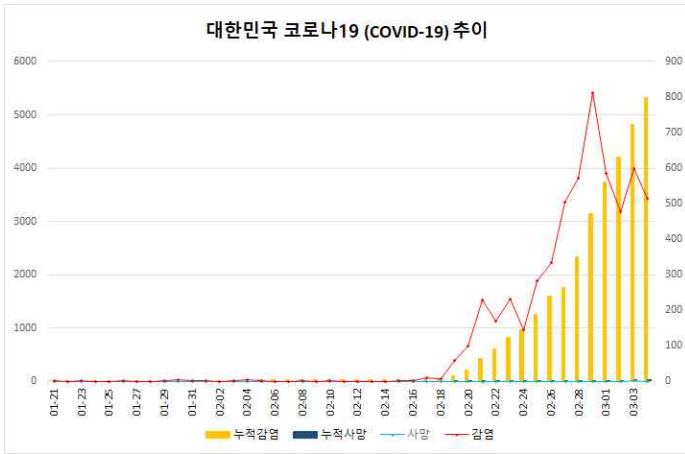
- 국내 코로나19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발생률 (2020.3.4. 00:00 기준)

NO.	지역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발생률
1	대구	4,006	22	0.55	164.7
2	경북	774	8	1.03	29.1
3	경기	101	1	0.10	0.8
4	서울	99	-	-	1.0
5	부산	93	1	1.07	0.4
6	충남	82	-	-	3.9
7	경남	65	-	-	1.9
8	울산	23	-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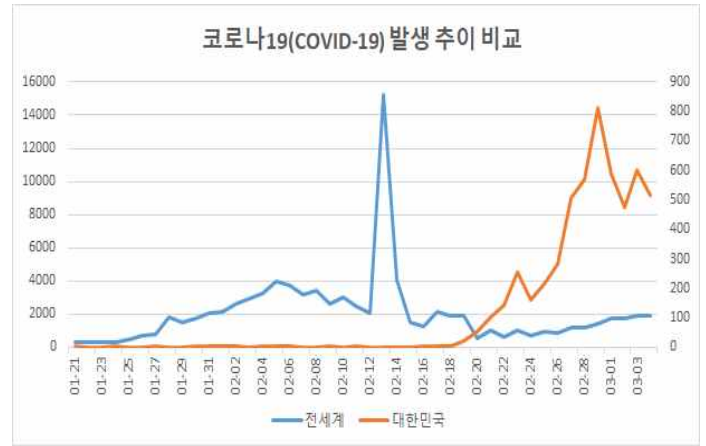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 국내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2020.3.4. 00:00 기준)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코로나19 발생 추이 비교

● **코로나19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2020.3.4.기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3.3.)

- \* 신천지교회 신도 전수조사가 **98.7%**(19,2634명/195,162명) 완료됨 (3.3. 0시 기준)
- \* 이 중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검사는 **49.6%**(6,561명/13,241명) 진행 후 결과 확인 중
- \* 대구 신천지 교인의 **72.5%**(7,913명/10,914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통보된 사람 중 **55.4%**(3,168명/5,715명)가 확진 판정을 받음.
- \* 신천지교인의 양성 감염률: 대구 68%, 경북 14%, 기타(그 외 지역) 1.7%
- 대구 신천지 신도 7,205명이 아직 검사를 미실시한 상황이며, 대구 양성 감염률 68%를 대입하여 보면, 향후 약 4,900여명이 추가로 확진될 수 있음.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경과**

조사대상 19만5162명

**19만2634명 완료(98.7%)**

유증상자 1만3241명 중 6561명 완료(49.6%)

**대구 신천지 신도 양성 판정률**

검사완료 3350명

**2283명(68.1%) 양성**

※ 대구, 경북 외 다른 지역 신천지 양성 판정률: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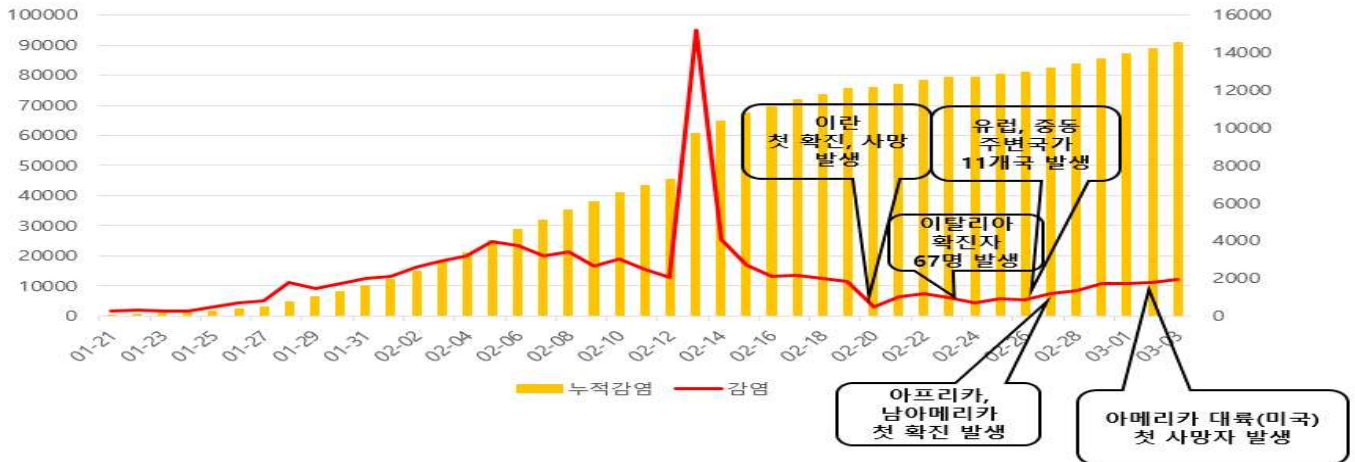
● 전 세계 발생 현황

- 2,236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93,172명(전일 대비 2.46% 증가)으로 보고됨.
- 이 중 3,203명(85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3.44%로 확인됨.
- 발생국가 및 지역 77개에서 81개(\*아르헨티나, 칠레,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로 증가됨.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4. 16:00 기준) (출처) 위키피디아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1	중국	80,270	2,981	29	아이슬란드	14	0	57	뉴질랜드	2	0
2	한국	5,328	32	30	레바논	13	0	58	이집트	2	0
3	이란	2,336	79	31	벨기에	13	0	59	아프가니스탄	1	0
4	이탈리아	2,052	77	32	이스라엘	12	0	60	안도라	1	0
5	일본	293	6	33	오만	12	0	61	아르헨티나	1	0
6	프랑스	212	4	34	산마리노	10	1	62	아르메니아	1	0
7	독일	203	0	35	덴마크	10	0	63	칠레	1	0
8	스페인	165	1	36	마카오	10	0	64	도미니카공화국	1	0
9	미국	125	9	37	크로아티아	9	0	65	요르단	1	0
10	싱가포르	110	0	38	카타르	8	0	66	라트비아	1	0
11	홍콩	100	2	39	에콰도르	7	0	67	리히텐슈타인	1	0
12	스위스	58	0	40	그리스	7	0	68	리투아니아	1	0
13	쿠웨이트	56	0	41	핀란드	6	0	69	룩셈부르크	1	0
14	영국	51	0	42	알제리	5	0	70	모나코	1	0
15	바레인	49	0	43	체코	5	0	71	모로코	1	0
16	태국	43	1	44	멕시코	5	0	72	나이지리아	1	0
17	대만	42	1	45	파키스탄	5	0	73	북마케도니아	1	0
18	호주	42	1	46	벨라루스	4	0	74	사우디아라비아	1	0
19	말레이시아	36	0	47	포르투갈	4	0	75	세네갈	1	0
20	캐나다	33	0	48	루마니아	4	1	76	튀니지	1	0
21	이라크	32	0	49	필리핀	3	0	77	우크라이나	1	0
22	노르웨이	32	0	50	아제르바이잔	3	0	78	캄보디아	1	0
23	스웨덴	30	0	51	조지아	3	0	79	네팔	1	0
24	아랍에미리트	27	0	52	러시아	3	0	80	스리랑카	1	0
25	네덜란드	24	0	53	브라질	2	0	81	일본 크루즈	706	6
26	오스트리아	21	0	54	에스토니아	2	0	합계	93,172	3,203	
27	인도	21	0	55	인도네시아	2	0				치명률 3.44%
28	베트남	16	0	56	아일랜드	2	0				

전 세계 코로나19 (COVID-19) 추이



전 세계 코로나19 추이 현황 (2020. 3. 3.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No.	국가 및 지역	사망자 수	치명률	발생율
1	미국	9	7.20	0.03
2	이탈리아	79	3.85	3.40
3	중국	2,945	3.67	5.76
4	이란	77	3.30	2.86
5	호주	1	2.56	0.16
6	대만	1	2.38	0.18
7	태국	1	2.33	0.06
8	일본	6	2.04	0.23
9	프랑스	4	1.89	0.32
10	한국	32	0.60	10.32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4. 16:00 기준)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생율
전 세계	90,870	3,112	3.42	1.17
중국	80,304	2,946	3.67	5.59
중국 외 국가	10,566	166	1.57	0.17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3.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코로나19 중심지가 중동, 유럽, 미주로 옮겨가고 있어

\* WHO 집계 기준으로 중국 외 국가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중국보다 많았음.

중국 외 국가 신규 확진자 1792명으로 중국 내 130명보다 많았고, 중국 외 국가 사망자 38명으로 중국 내 31명보다 많았음.

중국인 주민 6억 명에 적용한 대규모 봉쇄 작전이 효과를 드러냈다고 평가함.

- 유럽연합 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유럽 내 코로나19 위험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

\*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중 18개국에서 2,1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중임.

\* 각국에서는 당국의 지침 혹은 자율적 결정에 따라 각종 문화 행사가 취소됨.

\* 유럽 전역에서 이탈리아와 연관된 확진자가 속출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 확진환자 10,566명(전일 대비 1,792명 추가, 20.4%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166명(전일 대비 38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1.57%(전일 1.46%)확인됨.
- **미국 - 워싱턴 주에서 사망자 3명(총 9명) 발생함.**
  - \* 워싱턴 주(확진자 27명)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
  - \* 새로 추가된 사망자중 2명은 사망 후 뒤늦게 코로나19 감염 사실 확인됨.
  - \* 지난 달 26일 숨진 54세 남성 환자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19 양성이었음. 커클랜드 요양센터 입소자였으며, 지난 달 24일 의료센터에 입원했지만 이틀 뒤 사망함.
  - \* 다른 사망자 1명은 신원이나 상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
  - \*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 낸시 메소니에 국장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의 시작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함.
- **이란 - 확진자 835명(총 2,336명), 사망자 11명(총 77명) 발생함.**
  - \*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군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구는 코로나와 싸우기 위한 전시대비체제에 즉각 돌입하라고 명령함.
  - \*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하루 증가 폭이 가장 많음. 지난 29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는 205명, 385명, 523명, 835명으로 커지는 흐름을 보임.
  - \* WHO와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검사키트와 장비 지원으로 검사가 본격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
  - \* 이란 정부는 의심환자 5,737명을 검사했으며 검사 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은 41%임.
  - \* 이란의 치명률은 3.3%로 확진자 수의 증가로 감소하고 있음.
- **이탈리아 - 코로나19 사망자 79명**
  - \*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본격화한 이래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남(27명 증가).
  - \* 최대 확산자인 북부 롬바르디아 주에서 55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북부의 또 다른 주에서 18명 보고됨.
  - \* 사망자들은 모두 고령,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기저질환 없는 61세 사망자가 발생함.
  - \* 북부 3개주의 누적 확진자수는 전체 89.8%를 차지하여 90%이상을 발생하였던 것에 비하며 감소함. 이는 그 외 지역의 감염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을 의미함.
  - \* 남부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되어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감염자가 분포하는 상태임
  - \* 롬바르디아 주도인 밀라노에서 60km 떨어진 베르가모 지역에서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는 양상임. 보건당국은 '레드존'으로 지정해 주민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임.  
현재 바이러스 전파 사태가 처음 시작된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민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물론 외부인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음.
  - \* 보건 당국은 '1m 내 접근금지'를 권고함. 공공장소, 술집, 상점, 교회 등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내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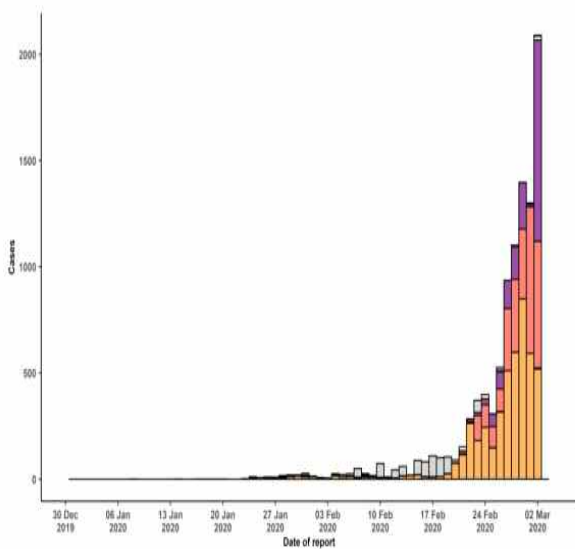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b>서태평양</b>						
한국	4812	600	28	6	지역 전파	0
일본	268	14	6	0	*지역 전파	0
싱가포르	108	2	0	0	*지역 전파	0
호주	33	6	1	0	*지역 전파	0
말레이시아	29	5	0	0	*지역 전파	0
베트남	16	0	0	0	*지역 전파	19
필리핀	3	0	1	0	해외 유입	28
뉴질랜드	2	1	0	0	해외 유입	0
캄보디아	1	0	0	0	해외 유입	36
<b>유럽</b>						
이탈리아	2036	347	52	17	*지역 전파	0
프랑스	191	91	3	1	*지역 전파	0
독일	157	28	0	0	*지역 전파	0
스페인	114	69	0	0	*지역 전파	0
영국	39	3	0	0	*지역 전파	0
스위스	30	6	0	0	*지역 전파	0
노르웨이	25	6	0	0	*지역 전파	0
오스트리아	18	8	0	0	해외 유입	0
네덜란드	18	5	0	0	*지역 전파	0
스웨덴	15	1	0	0	*지역 전파	0
이스라엘	10	3	0	0	*지역 전파	0
크로아티아	9	2	0	0	*지역 전파	0
아이슬란드	9	7	0	0	해외 유입	0
산마리노	8	7	0	0	*지역 전파	0
벨기에	8	7	0	0	해외 유입	0
핀란드	7	1	0	0	*지역 전파	0
그리스	7	0	0	0	*지역 전파	1
덴마크	5	1	0	0	*지역 전파	0
아제르바이잔	3	0	0	0	해외 유입	2
체코	3	0	0	0	해외 유입	1
조지아	3	0	0	0	해외 유입	2
루마니아	3	0	0	0	해외 유입	3
러시아	3	1	0	0	해외 유입	0
포르투갈	2	2	0	0	해외 유입	0
안도라	1	1	0	0	해외 유입	0
아르메니아	1	0	0	0	해외 유입	1
벨라루스	1	0	0	0	해외 유입	4
에스토니아	1	0	0	0	해외 유입	5
아일랜드	1	0	0	0	해외 유입	2
라트비아	1	1	0	0	해외 유입	0
리투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4
룩셈부르크	1	0	0	0	해외 유입	1
모나코	1	0	0	0	조사중	2
북마케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6
<b>동남아시아</b>						
태국	43	1	1	1	*지역 전파	0
인도	5	2	0	0	해외 유입	0
인도네시아	2	0	0	0	*지역 전파	0
네팔	1	0	0	0	해외 유입	39
스리랑카	1	0	0	0	해외 유입	36
<b>중동</b>						
이란	1501	523	66	12	*지역 전파	0
쿠웨이트	56	0	0	0	해외 유입	1
바레인	49	2	0	0	해외 유입	0
이라크	26	7	0	0	해외 유입	0
아랍에미리트	21	0	0	0	*지역 전파	1

중국 외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3.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레바논	13	3	0	0	*지역 전파	0
카타르	7	4	0	0	해외 유입	0
오만	6	0	0	0	해외 유입	4
파키스탄	5	1	0	0	해외 유입	0
이집트	2	0	0	0	해외 유입	0
아프가니스탄	1	0	0	0	해외 유입	8
요르단	1	1	0	0	해외 유입	0
모로코	1	1	0	0	해외 유입	0
사우디아라비아	1	1	0	0	해외 유입	0
튀니지	1	1	0	0	해외 유입	0
<b>아메리카</b>						
미국	64	2	2	2	*지역 전파	2
캐나다	27	8	0	0	*지역 전파	1
에콰도르	6	5	0	0	해외 유입	0
멕시코	5	0	0	0	해외 유입	1
브라질	2	0	0	0	*지역 전파	0
도미니카공화국	1	0	0	0	해외 유입	1
<b>아프리카</b>						
알제리	5	4	0	0	해외 유입	0
나이지리아	1	0	0	0	해외 유입	4
세네갈	1	1	0	0	해외 유입	0
<b>기타</b>						
일본 크루즈	706	0	6	0	*지역 전파	1
<b>총 합</b>	<b>10,566</b>	<b>1,792</b>	<b>166</b>	<b>38</b>		

\* 현재 대한민국은 입국제한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국(홍콩, 마카오)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3.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중국 발생 현황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 \* 80,270명(전일 대비 119명 추가, 0.15%증가)으로 보고됨.
- \* 사망자 2,943명 (전일 대비 38명 추가)으로 치명률 3.71%로 확인됨.
- \*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확진자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중국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4.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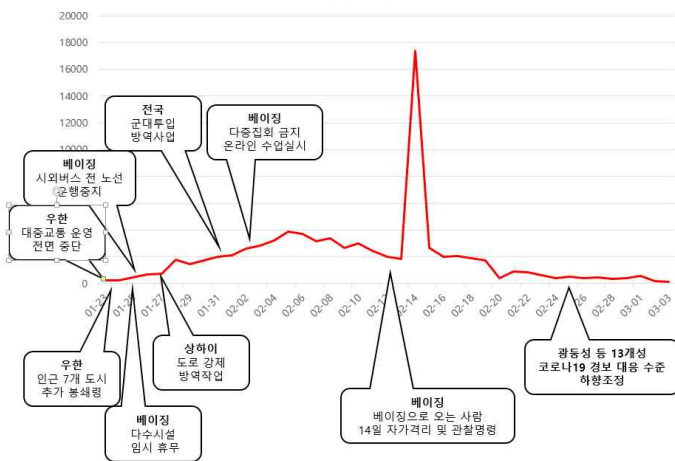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3. 3.(화) 9시 기준	80,151	2,943
3. 4.(수) 9시 기준	80,270	2981
증감	119	38

중국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3.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지역	인구수 (10,000s)	일일현황			누적현황	
		확진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후베이성	5,917	114	64	31	67,217	2,834
광둥성	11,346	0	0	0	1,350	7
허난성	9,605	0	0	0	1,272	22
저장성	5,737	7	0	0	1,213	1
후난성	6,899	0	0	0	1,018	4
베이징	2,154	0	14	0	414	8
상하이	2424	1	9	0	338	3
홍콩	745	3	0	0	101	2
대만	2359	2	0	0	42	1
마카오	66	0	0	0	10	0
기타	103,995	3	42	0	7,329	64
<b>총 합</b>	<b>148,823</b>	<b>130</b>	<b>129</b>	<b>31</b>	<b>80,304</b>	<b>2,94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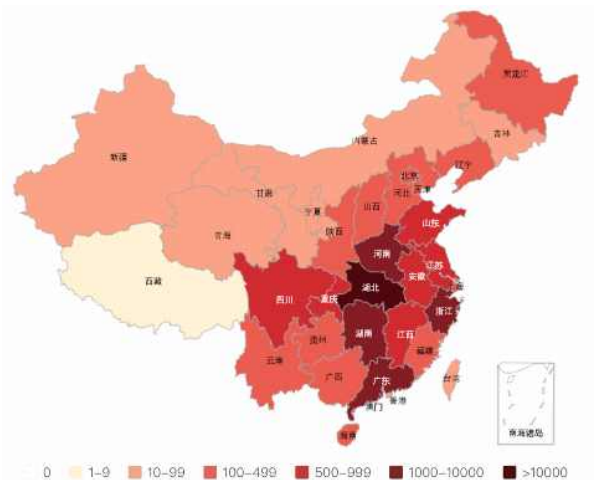
- \* 베이징의 전일 의심환자 12명 중 확진 보고되지 않음.
- \* 상하이의 전일 의심환자 11명 중 확진 1명 보고됨.

중국 코로나19(COVID-19) 확진 현황



중국 코로나19 확진 현황 (2020. 3. 3. 18:00.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분포 (출처) <http://ncov.dxy.cn/>

## 2.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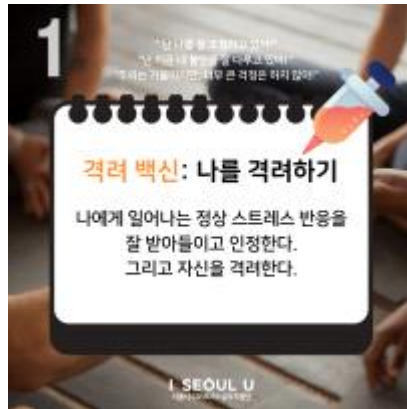
### 서울시

서울소식 내 새소식, 보도자료, 소셜시장실 및 서울시 내부문건 기반으로 작성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 심리방역 위한 마음백신 7가지 제시

-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줄이고 시민들의 심리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COVID19 심리지원단'을 발족
  - \* 정신과전문의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단장으로, 응급의학과 및 내과 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예술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됨
-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증가하면서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공포감 확대, 사재기, 혐오행동 등 심리적 불안 증폭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시민의 심리 안정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활동함
-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 7가지'로 ▲격려 백신-나를 격려하기 ▲긍정 백신-좋은 일 하기 ▲실천 백신-수칙을 솔선수범 실천하기 ▲지식 백신-제대로 알기 ▲희망 백신-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 ▲정보 백신-도움 받는 법 알아두기 ▲균형 백신-이성의 균형 유지하기 등을 제시함

####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백신 7가지 카드뉴스



- 발족에 앞서 공개한 심리지원단 안내와 마음처방전 등 심리안정 콘텐츠 15건 게재 결과, 단기간에 높은 조회수 기록
  - \* 2.24.~3.2일까지 방문횟수는 4,367건, 페이지뷰 수는 8,244건. 접속통로는 모바일 접속이 3,915건으로 90%이상. 접속지역은 서울시가 2,157명, 경기도 795명, 대구 203명을 기록
  - \*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안내 콘텐츠가 조회수 2,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1,705건), 마음백신(706건) 순으로, 시민들의 심리방역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홈페이지, SNS 주요콘텐츠로 카드뉴스를 활용한 ‘마음처방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팩트체크’, 시민에게 보내는 마음편지 ‘치유레터’를 제작, 적극적으로 배포할 예정임
  - \* 마음처방전은 심리안정 콘텐츠로 과도한 공포로부터 균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백신 7가지, 마음돌봄 손씻기 등을 게재
  - \* 팩트체크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판별팀이 ‘숨참기 테스트 10초로 코로나19를 진단한다?’ 등 가짜뉴스를 체크함
  - \* 치유레터는 ‘모든 사람이 이 전쟁의 참전용사이고, 우리의 전우입니다.’ 등으로 시민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함
-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심리안정 콘텐츠를 배포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응원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임
- 심리지원단 홈페이지(<http://covid19seoulmind.org/>),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ovid19seoulmind>)

### ● 서울시, 개학 연기로 결식하는 학생 없도록 급식 지원

- 서울시는 지난 2월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에 등교하면 제공 받았던 급식이 중단되어 결식 우려 학생은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
  - \* 서울시내 학교 개학 연기로 ‘방학 중’ 중식 지원 대상자에게 개학 연장 일수만큼 중식비(1식 단가 6천원)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서울시내 초·중·고교 1,309개교, 3,808명)
- ‘코로나19’로 휴관한 지역아동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아동급식기관은 ‘행복도시락’ 배달 등으로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 휴관한 아동급식기관에서는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유형을 변경 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3월 3일기준 휴관한 아동급식기관 439개소, 행복도시락 배달 2,397명, 부식 배달 2,093명, 긴급돌봄 1,201명, 꿈나무카드 한시발급 546명, 총 6,237명)
- 개학이 추가 연기된 기간(3월9일~3월22일)에도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하여 결식 아동이 없도록 급식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추가 소요된 지자체 예산은 올해 편성(44,930백만원)된 하반기 아동급식 지원 예산으로 우선 사용함

### ● 서울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추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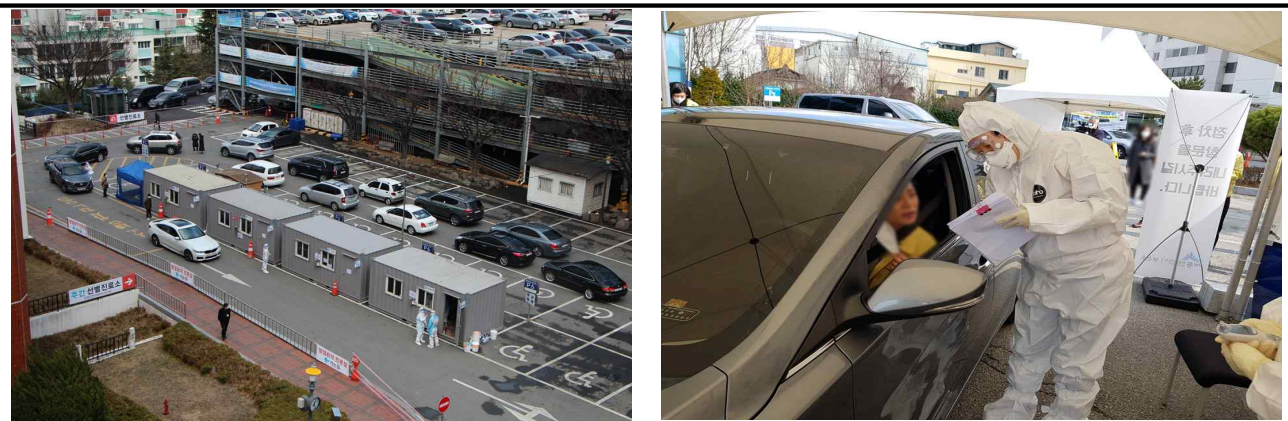
- 서울시는 오늘(3.4.),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이어 2차 격리시설로 서울시 영어마을 강북 수유캠프를 지정함
  - \* 서울시는 지난 2월 8일(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킴
  - \*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되는 상황이 발생, 그간 자체 검토중이던 영어마을을 추가로 지정한 것임
- 앞으로 영어마을 수유 캠프에서는 인재원과 마찬가지로, ‘자가격리자 중에서’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고,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지원함
- 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는, 전문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이 상주하면서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사태확산 만전을 기함
  - \*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
  - \*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하여 즉각 집행할 예정
- 영어마을 내부는 물론 관할 보건소와 협력하여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예정



●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가 가능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함
  - \*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 \*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1일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하는 데 비해 자동차 이동형은 소독·환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시간당 6건, 1일 60건까지 가능함
  - \*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대기자 또는 의료진의 교차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방식, 인력 구성, 공간조건,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자동차 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사례



드라이브 스루형 모델의 검체 채취 규모

- 소요시간 : ‘접수-진료-검체 채취-소독 및 교육 등’ 총 10분 내외 소요
- 시간당 채취 건수 : (드라이브 스루형) 6건 VS. (일반 선별진료소) 2건
- 1일 채취 건수 : 시간당 6건 x 1일 10시간 = 60건

표준운영지침 주요내용

- (운영방식) ①접수-②진료-③검체 채취(상기도/하기도) - ④소독 및 교육
  - \*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 부스를 2단계로 간소화 운영 가능
- (인력) 행정인력 1~3명(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통제 등), 의사 1~2명(진료), 간호인력 1~2명(검체 채취), 방역 1명(소독) 등 운영 형태에 따라 4~8명으로 운영 가능
- (공간조건) 주차 및 차량 이동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하여, 컨테이너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 설치
- (고려사항) 1인 운전자 대상(보호자 동승 불가)이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예약제 운영 필요

● **2020년도 신입 공중보건 의사 742명, 코로나19 현장 배치 대비 직무교육 실시**

- 2020년도 신규 공중보건 의사 중앙직무교육 3월 5일 개최, 3월 9일부터 대구·경북 등 전국 각 지역 배치 예정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 2020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 724명 조기임용,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업무 수행 지원 할 계획임
  - \*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보건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업무 담당 의사로서, 원칙적으로는 4주간의 군사교육, 2일간의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 배치됨
  - \*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과 의료인력 부족 현상 극심으로, 군사교육 사전에 받지 않고 긴급 현장 투입 됨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교육과정 마련
  - \*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level-D) 착용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선별진료소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 \* 선별진료소에 배치된 선배 공중보건 의사와 대학교수 등이 이론교육을, 질병관리본부가 실습교육에 나섬
- 교육을 수료한 신규 공중보건 의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배치됨
  - \*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257명의 공중보건 의사가 대구·경북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원 근무 중임

● **일본 크루즈 귀국 국민 퇴소**

- 2월 19일부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 크루즈 귀국 국민 등 7명이 임시생활시설 오늘 퇴소
- 일본 크루즈에서 하선한 날이 2월 18일 기준으로 퇴소일 3월 4일 결정,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모두 임시생활시설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276) 첫 코로나19 완치, 청도대남병원 정신질환자 코로나19 진료지침 확정**

-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중증으로 분류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되었던 환자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됨
  - \* 초기, 코로나19 276번 환자는 오랜 정신질환 투병으로 인해 입원 당시 전신상태 악화 정도가 심하였으며 양쪽 폐에 다발성 폐렴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했던 중증환자였음
  - \* 수년간의 단체 입원생활로 인해 격리병실에서의 입원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격리병동에서 폐렴에 대한 집중치료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매일 음압격리 병실에 입실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면담을 시행,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폐렴 증세도 회복되어 퇴원기준에 만족
  - \* 3월 1일과 2일 양일간 두 차례의 PCR 검사 결과 음성, 감염력 없는 것으로 판단, 3월 3일(화) 격리해제 가능 판정을 받고, 3월 4일(수) 일반 정신병동인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
-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10명의 환자 중 2명은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인 상태 이지만 10명 모두 전반적으로 호전 중임
-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청도대남병원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중앙임상위의 컨퍼런스(3월2일, 월)를 거쳐 질병관리 본부와 공유함
  - \* 해당 진료지침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북대병원 등 대남병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각 병원에 제공될 예정
  - \*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임상위원회는 3월 2일 컨퍼런스에서 항바이러스제인 칼레트라와 정신질환 치료제들과의 약물 상호작용에 관하여 논의하여 지침 초안을 보완함

**정신질환자 코로나19 진료지침(요약본)**

1. 환자가 도착 시, 가져 온 이전 병원 의무기록은 음압병실로 반입되지 않고, clean zone에 있도록 조치
2. 기존 처방을 확인하여 원내 처방으로 입력
3. mood stabilizer 처방 중일 경우, 익일 TDM order를 입력하고, 임상적 평가에 기반하여 증감량 계획을 수립, 정기적 TDM을 지속
4. 호흡저하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benzodiazepine 감량 계획을 수립
5. quetiapine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야 할 경우, 항바이러스 제제에 의한 독성 증가를 고려
6. 의무기록에서 선천적 상태(소아마비, 지적장애 등) 및 이미 진단받은 신경학적 상태(stroke 등) 확인
7. beta blocker를 사용 중일 경우 천식, COPD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감량이나 중단 계획을 수립
8. 마비, 보행장애 등 운동 제한의 정도에 기반한 낙상 가능성에 대한 침상 옆 매트리스 적용, 강박의 필요성 평가
9. 수면 및 식사 관련 문제를 평가
10.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정서행동 문제, 갈등, 의료진에 대한 협조 정도를 미리 파악

##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254개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4일 기준 총 25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힘
  - \*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함
  - \* 전국적으로 27개 상급종합병원, 172개 종합병원, 55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 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정을 신청한 25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83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를, 100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함
  - \*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 국군대구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 국군대구병원은 올해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써, 3월 5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운영함
  - \* 「감염병 예방법」 제37조 제1항 : 감염병 위기 시 복지부 장관의 직권 지정
- 국군대구병원은 주로 재활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100병상 규모의 병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303병상으로 확장 시설 공사를 진행하였음
- 이번에 확충되는 병상은 음압시설을 갖추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 치료를 위하여 운영\*되며, 333명의 의료·행정 인력 등으로 운영할 예정임
  - \* 총 92실 : 1인실 15개, 2인실 10개, 4인실 67개 (음압기 121대 설치)

## ● 경북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치료 상황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 19 확진받은 정신질환자 102명에 대한 치료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 \* 102명 중 상태가 위중했던 33명은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전남대병원 등 총 18개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으로 전원(1명 음성 확인, 31명은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 중)
  - \* 29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 되었으며, 그 외 33명은 대남병원에 남아서 코로나19 치료를 하고 있음
-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전원된 29명 중 4명 음성, 25명 양성으로 확인, 대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33명 음성 16명, 양성 17명으로 확인됨
  - \* 음성 확인자 20명 국립부곡병원 이송 치료, 대남병원 내 확진자 17명은 3월 5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

## ● 마스크 및 생활용품 민간후원 연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따라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 등 생활용품 등의 민간 후원을 연계하고 있음
  - \* 국민연금공단(마스크 2만개, 손소독제 9천개), LG생활건강(생활용품 7.5만개) 등
  - \* 후원 물품은 요양시설 및 주간 보호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배부되어 시설 종사자 보호 및 자가격리에 따라 홀로 남은 어르신이나 홀로 장을 보기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또한 노숙인 및 수급자에 대한 식품 지원을 위해 도드람한돈농협은 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하여 자활센터 및 노숙인종합복지센터에 5,020팩의 식품키트를 기부함

## Behavioural science must be at the heart of the public health response to covid-19

Susan Michie<sup>1)</sup>, James Rubin<sup>2)</sup>, Richard Amlôt<sup>3)</sup>

### ○ 개요

- 인간의 행동은 COVID-19 확산과 사망률 급증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 따라서, 행동과학은 공공보건으로 대응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함
-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행위에 관해 대중에게 전달할 행동수칙을 정하는 동안, 잠재적 위기에 대한 대중 행동변화는 지연되고, 수백 또는 수천의 잠재적 사망 발생 예방엔 너무 늦을지도 모름
- 이전 감염병 대응 사례에서 교훈을 배우고, 행동과학을 중심으로 COVID-19 확산 완화를 위한 공공보건으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새로운 감염병 대응행은 각종 국가 시스템 역량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며, 감염질환 완화 노력의 성공은 가족과 지역사회와 같은 비공식 네트워크의 지지와 관심 정도에 의해 결정 될 것임

### ○ 감염병 관련 행동 수칙

- 대중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행동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치료 절차에 대한 가이드도 명확히 제공해야 함
- 대중이 어떻게 정보를 인지하고, “행동”하게 하느냐는 과학에 기반 함
  - 첫 번째 단계는, 누가 어떤 행동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임
  - 두 번째 단계는, 대중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기회, 동기를 갖게 하는 것으로,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 WHO, 영국 CDC와 보건당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감염병 확산 감소를 위해 중요한 행동수칙 1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영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행동수칙

Group of behaviours	Behaviour
Hand hygiene	1.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정기적으로 씻음
	2. 항상 손을 닦아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침과 재채기 후</li> <li>• 코나 입을 만진 후</li> <li>• 환자를 돌본 후</li> <li>• 음식 준비 하기전, 하는 동안</li> <li>• 식사전</li> <li>• 화장실 이용 후</li> <li>• 동물 또는 동물 배변물 케어 후</li> </ul>
	3. 비누와 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알콜 손세정제 사용. 특히, 대중교통 이용 후 중요함
Surface hygiene	4. 자주 사용하는 물건, 집과 직장환경을 깨끗하게 소독
Respiratory	5. 재채기는 팔꿈치 안쪽 또는 휴지에. 재채기는 최대한 자제
Touching	6. 기침이나 재채기 후 휴지는 즉시 덮개가 있는 휴지통에 버림
Self-isolation	7. 씻지않은 손으로 코, 입, 눈 만지지 않기
Social distancing	8. 일정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14일간 머무르기
	9. 증상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면, 접촉 피하기. 타인과 거리두기. 특별히 기침, 재채기 또는 열이 있는 사람과의 거리 유지
Healthcare	10. 열, 기침, 호흡 곤란을 겪는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 의료진에게 진료 받고, 여행 경력 알리기
	11. 만약 최근 14일 이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했다면 helpline으로 전화하기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12. 만약 확진자를 돌봐야 한다면, 마스크, 눈보호기구, 장갑 착용
Food safety	13. 조리되지 않은 육류 또는 날 음식 피하기. 날 고기, 우유, 또는 동물의 내장을 다룰 때 기타 음식을 교차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해서 다룸

- 각 행동의 중요성은 국가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또한 이런 각 행동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세부 행동 수칙들을 필요로 함
- 각 행동들은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적 동기, 역량, 기회에 대한 차별화 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감염병 관련 공공보건의로 정책의 전략적 대응 위한 행동과학 중심의 연구 수행 필요**

- COVID-19 감염경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속 연구 필요, 다음과 같은 행동과학 중심의 연구 수행 필요
  - 현재 대중들의 인지 수준, 대응 당국에 대한 불안 및 신뢰, COVID-19 공공보건의로 조치에 대한 태도,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이러한 변수에 미치는 영향
  - 자가격리 프로토콜과 같은 공공보건의로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 또는 확산제
  - 하부 그룹(heterogeneous population groups and health professionals)에 필요한 정보
  - 감염확산 방지 행위에 대한 의도적·비의도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e.g. anxiety, stigma)
  - 의료 종사자들의 행위, 의도, 우려 등
  - 비감염자 또는 경증 환자가 에 대한 관리(상태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방지 등)
  - 감염관련 정보, 루머 또는 학교 임시 휴교 등의 영향으로 달라진 대중의 접촉 패턴 변화
  - COVID-19와 관련한 학교 및 직장의 absentee-ism and presentee-ism의 관리 및 완화
- 현재 영국 내 감염질환 확산을 완화하고, 향후 대유행에 준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로 대응 정책과 행동과학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1) **Susan Michie** is Professor of Health Psychology and Director of the Centre for Behaviour Change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a member of the Scientific Pandemic Influenza Group on Behavioural Science (SPI-B): 2019 Novel Coronavirus (Covid-19)

2) **James Rubin**, Department of Psychological Medicine, King's College London, Weston Education Centre, Cutcombe Road, London

3) **Richard Amlôt** PhD, Behavioural Science Team, Emergency Response Department Science and Technology (ERD S&T), Public Health England

### 3. 주요 뉴스

#### 발생·치료 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 코로나19 확진자 어제 516명 증가...총 5천328명·사망 32명(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천328명으로 늘어났다. 전체의 89.7%인 4천 780명이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로 나타났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3일) 0시에 비해 516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외 신규 확진자는 서울 1명, 부산 3명, 인천 2명, 광주 2명, 대전 1명, 울산 3명, 경기 7명, 강원 1명, 충남 1명, 경남 1명 등이다. 사망자는 총 32명이다. 전날 0시 기준 28명보다 4명이 늘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66852017?input=1195m>)

#### ● '100명 육박' 서울 확진자..이렇게 감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확진자수가 100명 선에 육박했다. 서울은 가장 다양한 감염 경로를 보이고 있어 방역 당국이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는 확진환자를 △은평성모병원 관련 14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자 8명 △명성교회 관련 감염자 3명 △신천지 교회 관련 감염자 2명 △기타 71명 등으로 집계했다. 서울시 확진자를 감염경로 별로 살펴보면,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들이 가장 많다. 이 병원과 관련해 총 14명의 확진자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추정하기 힘든 환자들도 많다. 서울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진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접촉력이 명시돼있지 않은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v.daum.net/v/20200304050035578>)

#### 정책대응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 정부, 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의결...내일 국회 제출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담긴다. 정부는 의결하는 추경안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303186300001>)

#### ● 文대통령 “대구 병상 부족, 민간 보유 시설 최대 활용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구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민간이 보유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시설을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출처 : 뉴스1([http://www.news1.com/view/?id=NISX20200304\\_0000942425&cID=10301&pID=10300](http://www.news1.com/view/?id=NISX20200304_0000942425&cID=10301&pID=10300))



● 정총리 "코로나19 확진자수, 2~3일 내 변화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대해 “앞으로 2~3일 내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일 수가 거의 일주일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나 지금 대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협조와 응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31022.html>)

● 경찰, 사라진 코로나 검사 대상 389명 추적

경찰청은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재 확인을 요청받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6039명 가운데 93.6%인 5650명을 찾았고 나머지 389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을 조사하면서 접촉자를 파악한 뒤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찾아 달라고 요청을 한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 현황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4010029&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4010029&wlog_tag3=naver))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만4500명 '출국금지'...확진자 접촉 시점부터 2주간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1월20일부터 최근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1만4500여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출입국관리법 4조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때도 자가격리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110200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1102001&code=940100)

● 당정청 "마스크 수출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줄이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가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사용 기준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정부가 최단시일 내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32252001?input=1195m>)

● 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운영...마음백신 배포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줄이고 시민들의 심리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코비드(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 심리지원단은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증가하면서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공포감 확대, 사재기, 혐오행동 등 심리적 불안 증폭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시민의 심리 안정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활동한다. 정신과전문의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단장으로 응급의학과와 내과 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예술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은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 7가지'로 ▲격려 백신-나를 격려하기 ▲긍정 백신-좋은 일 하기 ▲실천 백신-수칙을 솔선수범 실천하기 ▲지식 백신-제대로 알기 ▲희망 백신-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 ▲정보 백신-도움 받는 법 알아두기 ▲균형 백신-이성의 균형 유지하기 등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운영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142&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142&cID=10201&pID=10200))

● '국민안심병원' 전국 254곳...호흡기 질환자 안심하고 진료

호흡기 질환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마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찾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전국에 254곳 지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4일 기준 총 27개 상급종합병원, 172개 종합병원, 55개 병원 등 25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는 외래·입원 감염예방관리료(2만원)와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일반격리 3만8000~4만9000원, 음압격리 12만6000~16만4000원) 등으로 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146&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146&cID=10201&pID=10200))



● 새로 임용된 공보의 750명, 대구 등에 보낸다

의료진 부족으로 허덕이는 대구 등에 공중보건(일반·전문의) 750명이 대거 투입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3일 "의료진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 신규 공중보건의 전부를 임명 즉시 대구 등에 파견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며 "공보의들이 현장에 합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대구에 파견된 기존 공보의 250명과 합치면 공보의만 1000명가량 투입돼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3년(36개월)간 섬이나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되는 의사를 말한다. 새로 임명된 공보의들은 5일 소집돼 근무지 배치가 완료되면 대구 등에서 환자 치료는 물론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하거나 역학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모두 해당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진료를 위해선 의사만 투입된다.

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017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017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병원 끝나면 보건소로 출근”... 한밤 사투 돕는 동네 의사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직 의사들이 선별진료 업무를 자청하고 나섰다.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라는 말처럼 참 의사의 사명을 실천하는 이들의 행동에 한계에 다다랐던 지역 공공 의료체계도 점차 숨통이 트이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송파구 및 강동구, 구로구, 관악구, 성북구 등에서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뭉친 의사들이 선별진료소 의료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3일 기준 12명) 송파구에선 개원의 11명이 의료 봉사를 자청했다. 이들은 1일부터 개인병원 진료가 끝난 뒤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선별진료소로 향하고 있다. 서 원장은 민간 의료진이 공공 의료를 돕는 것을 사회의 유전적 발전 과정의 하나에 비유했다. 그는 “미래에 또 다른 전염병이 찾아올 것은 분명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민간 의료의 비상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31667727836?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인천지 유증상자 절반 검사... 대구 68% 양성, 그 외는 1.7%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4812명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 대구교회'를 통한 감염이 2698명(56.1%)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날까지 인천지 신도 19만5162명 중 19만2634명(98.7%)에 대한 전화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간 조사 결과로 볼 때 대구·경북을 제외한 인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천지와 관련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인천지 신도는 진단 키트를 활용한 검사 결과, 1.7%만 확진됐다"고 했다. 다만 대구시는 "인천지 신도 7205명에 대한 검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지 신도 중 20대 여성이 많아 확진자도 20대와 여성 비율이 높았다.

우한 코로나 국내 현황		연령별 확진자 현황	
3월 02시 11시 45분 기준	우한-인천지역 80명	확진자	사망
확진자	5186명 ▲851(완치 35명)	0-9세	34명
사망자	32명 ▲4	10-19세	204명
검사 중 인원	3만5555명 ▲1756	20-29세	1417명
인천지대구교회 관련자 비율		30-39세	578명 1명 0.2%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	38,944 기준	40-49세	713명 1명 0.1%
56.1% (2698명)	43.9% (2114명)	50-59세	952명 5명 0.5%
전국 시·도별 확진자 수		60-69세	597명 7명 1.2%
서울	98(▲7) 강원	70-79세	224명 12명 5.4%
부산	90(▲2) 충북	80세 이상	93명 6명 6.5%
대구	3601(▲520) 충남	81명	20명 1.1%
인천	7(▲0) 전북	82명	12명 0.3%
광주	11(▲2) 전남	83명	12명 0.3%
대전	14(▲0) 경북	84명	12명 0.3%
울산	20(▲0) 경남	85명	12명 0.3%
세종	1(▲0) 제주	86명	12명 0.3%
경기	94(▲2) 합계	87명	12명 0.3%
3월 04 기준	자료: 질병관리본부	88명	12명 0.3%

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026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026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서울시 "대구 장애인 시설 확진자 5명 서울시립병원 입원 지원"

서울시가 대구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의 서울시립병원 입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6명은 서울의료원 등 5개 기관에서 입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남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파견근무했던 12명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격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https://news.v.daum.net/v/20200303115607680>)



● "은평성모병원 폐쇄해제, 잠복기 안 끝나..논의해 결정"

서울시가 은평성모병원 폐쇄 해제 시점에 대해 "격리 대상자가 없고 구역 소독이 확인돼야 한다"며 "아직 환자들이 증세를 보이고, 마지막 환자 발생 이후로부터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폐쇄 해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은평성모병원 관련 확진환자 수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나 국장은 "환자 및 직원 3422건에 대해서도 PCR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2건 외에 3420건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입원 환자는 소독 후 클린존으로 재배치했고 동선을 분리해 안전을 확보했다. 1인1실로 격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https://news.v.daum.net/v/20200303112228104>)

● **서울성모병원, 7층 '통째로' 비워 코로나19 환자 받는다**

서울성모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의심 환자를 위해 병동 7층을 통째로 비운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중에서 병동을 비우는 '소개'에 돌입한 건 서울성모병원이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성모병원은 7층 1병동 일부를 격리병동으로 운영해왔는데, 이곳을 중환자실 2개와 1인실 2개, 4인실 2개로 개편해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받기로 했다. 1병동에서 일반 호흡기질환자 등이 입원해있던 나머지 공간도 비운다. 이곳에는 경증 환자를 받기로 했다. 이로써 1병동에서만 코로나19 중증·경증 환자를 위한 30병상을 확보했다. 7층 2병동 역시 기존 입원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받을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303173800017>)



● **“일반직도 방역업무 차출 불가피”... 과로로 쓰러지는 공무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모두 중단됐어요. 남은 직원도 현장에 나간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떠맡으며 연쇄적으로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며 보건당국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방역, 예방 등을 지원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매일 밤늦도록 일하다 퇴근한다”면서도 “방역이 우선이라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4/999915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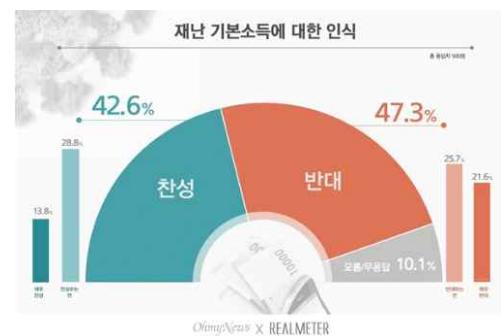
● **서울 주요 병원들, 대구경북에 의료진 속속 파견**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돕기에 나섰다. 의료진을 속속 현지에 파견하거나 대구경북 지역의 중증 환자를 이송 받아 치료할 예정이다.

출처 : 동아일보(<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4/99991471/1>)

●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제 "찬성" 42.6% - "반대" 47.3% 팽팽**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된 가운데, 재난 상황을 맞아 일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 '반대한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다.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두 응답의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4.4%p) 안이었다.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인식은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찬성은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대는 보수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는 반대가 많았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반대쪽이었다. 특히 20대(만 18~19세 포함)에서 반대가 가장 많이 나왔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극복 수당' 개념의 지원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대신 저소득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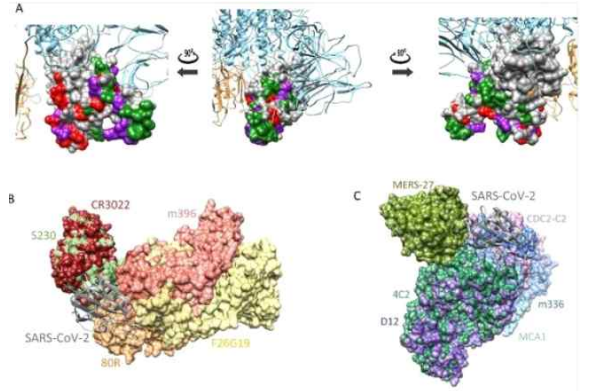
출처 : 오마이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04074840947>)

● **국내 연구진, 코로나 무력화 항체 발견...백신 개발 속도낸다**

국내 연구진이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다. 한국화학연구원 CEVI(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은 사스(SARS)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중화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스 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을 확인한 뒤, 기존 사스·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생물정보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사스 중화항체 2종류와 메르스 중화항체 1종류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를 통해 의료용 항체 개발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용 '프라이머·프로브 세트'의 민감도를 비교한 결과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김흥기 CEVI 융합연구단 선임연구원은 "진단 수요가 많은 국내에서 보다 민감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의 분자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21777>)



"코로나19, 중추신경 침범 가능성...두통·구토 등 증상 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통, 구역, 구토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건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거쳐 중추신경계를 침범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 결과를 내놓은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류의 이런 중추신경계 침범이 주로 코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스크를 쓸 때 꼭 코를 잘 가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팀이 분석한 환자들은 첫 증상부터 호흡 곤란까지 평균 5일이 걸렸으며 병원 입원까지는 평균 7일, 집중 치료까지는 평균 8일이 각각 소요됐다. 이 정도 시간이면 바이러스가 뇌 속 뉴런(신경세포)에 들어가 신경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연구팀의 추론이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신경계 침입을 고려할 때, 항바이러스 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이 연구팀은 권고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3179200017?input=1195m>)

● **코로나19 한달 "국민 과반 '일상 정지했다'...분노 감정 높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여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일상이 정지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으로는 '분노'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연구팀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5~28일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절반 이상 정지된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구팀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월 31일~2월 4일(1차조사) 진행한 설문에서의 응답 비율(48.0%)보다 1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는 특히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 지역의 스트레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방역 당국의 대응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졌으나, 국가리더십, 언론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대구 지역사회의 정신심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40800017?input=1195m>)

● 10조 빛내 코로나 경기 버티기...나라살림 적자비율 환란후 최고

11조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2개월여만에 편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추경의 절반 이상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슈퍼 추경'을 위해 10조3천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서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후 최대로 올라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예산 8조5천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천억원을 제외하고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조4천억원 ▲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천억원 등 나머지 6조2천억원이 전부 내수 살리기에 쓰인다. 특히 얼어붙은 소비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급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으로 2020년 예산 기준 805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15조5천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까지 올라간다. 재정 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를 마지노선으로 봐왔는데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악화하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3198251002?input=1195m>)



●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치사율 3.4%, 계절성 독감보다 높아"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보고된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3.4%에 이른다"며 "이는 치사율이 1% 미만인 계절성 독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아직 어떤 치료법이 작동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절성 독감에 비해 확산력이 약한 질병이며 가장 우려하는 무증상 확진자 사례 또한 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의 확진자는 2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지만 임상시험과 20개 이상의 개발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0411094195505>)

● 벌써 70여개국에 퍼졌는데..WHO "코로나19 팬데믹 정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0여 개국으로 퍼지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WHO의 타렉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기구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기준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정의 규정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 그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새로운 (팬데믹) 정의는 만들어졌지만, 코로나19를 위한 (팬데믹 정의는)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의 권고 사항은 변함이 없다"며 "회원국은 WHO가 제공하는 정보와 현지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조처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04060525473>)

● 미국 FDA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검사 역량 100만건으로 확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스티븐 한 국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약 100만 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한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테스트 키트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업체와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대는 이번 주말까지 연구소들이 약 100만 건의 테스트를 수행할 키트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다만 "연구소들에 테스트 키트를 배포하는 능력과 연구소들이 실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19200091?input=1195m>)

● 런던 한복판서 아시아계 학생 폭행.."코로나 싫다"

영국 수도 런던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BBC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싱가포르 유학생 조너선 목(23)이 길거리에서 한 청년 무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욕설을 듣고 폭행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목은 "몇몇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향한 증오의 변명거리로 삼고 있다"며 "이런 경험이 이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더럽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동양인 인종차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v.daum.net/v/20200303230657087?f=m&from=mtop>)

[To anyone who saw the incident on Monday night (24 Feb 2020) at Oxford Street (just opposite the Primark at Tottenham Court Road), or have any knowledge of or evidence to the incident, please contact me or the Met Police UK to provide evidence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To the kind lady who helped videotape the incident and call the police, if you read this, please contact me I would like to have a copy of the video! Thank you!]  
\*(See: <https://edition.cnn.com/.../coronavirus-racist-at-.../index.html>...)



#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 예시1.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보호 방안
무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조건 모두 충족</li> <li>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li> <li>④ 비흡연자 ⑤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li> </ul>	연수원, 호텔 등 시설격리
경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li> <li>① 50세 미만 ② 5기저질환 1개 이상</li> <li>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li> </ul>	
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li> <li>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li> </ul>	감염병 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식이 떨어진 경우</li> </ul>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 ● 예시2.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증(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증(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호흡 등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RRT, ECMO 필요</li> <li>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 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li> </ul>

\*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li> </ul>
만성 기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li> </ul>
특수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li> </ul>
입원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li> </ul>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지자체용)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3. 4.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	02-6925-1111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877-8875
3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	02-1588-3330
4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	02-858-0100
5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	02-950-1114
6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77-3675
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58-8114
8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	02-966-1616
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90-8114
10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	02-912-0100
11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829-5114
12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	02-2632-0013~8
13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88-5700
1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	02-2270-0114
15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019-2114
16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	02-1544-7522
1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25-1111
18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440-8114
1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1522-7000
20	광진구	혜민병원	외래	02-2049-9000
21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626-1114
22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	02-970-8000
23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	02-970-2114
24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01-3114
25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6299-1114
26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870-2114
2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99-1004
28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	02-396-9161
29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1588-1511
30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920-5114
31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650-5114
32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	02-2604-7551
33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	1811-8114
34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709-9114
35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	02-353-5511~9
36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001-2001
37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	02-2002-8000
38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	02-737-0181
39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 입원, 선별진료소	02-2260-7114
40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	02-437-5011
41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	02-490-2000
총합	21개 자치구	41개소	외래 20개소, 외래, 입원, 선별진료21개소	-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27)	좋은문화병원, 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좋은삼선병원, 삼육부산병원, 좋은강안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영도병원, 해운대부민병원*, 세웅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부산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광혜병원, 동래봉생병원, 구포성심병원, 부산대학교병원*, BHS한서병원, 부산선팀병원, 에스병원, 오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18)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나은병원*, 검단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기독병원, 비에스종합병원, 더드림병원, 길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뉴성민병원, 온누리병원, 나사렛국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드림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시티병원, 천주성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푸른병원
광주(2)	전남대학교병원*, 서광병원
대전(6)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울산(7)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중앙병원, 울산시티병원, 21세기좋은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동강병원 명지병원*, 자인메디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세종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바른마디병원, 이춘택병원, 센트럴병원, 강남병원*, 다보스병원, 메디인병원, 박애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원광종합병원, 남양디에스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지샘병원, 히즈메디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바른세상병원, 서울나우병원, 정병원*, 지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동수원병원, 월스기념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단원병원, 사랑의병원, 안성성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평촌서울나우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오산한국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백병원, 성베드로병원, 이천엘리아병원, 평택굿모닝병원*, 박병원*, 하남SD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강원(4)	강릉아산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8)	한국병원,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진천성모병원, 효성병원,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남(11)	백제병원, 천안충무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아산충무병원*, 현대병원, 예산종합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우리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전북(8)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남원의료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순천한국병원*, 장흥종합병원, 고흥종합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경북(12)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김천제일병원, 문경제일병원, 상주성모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좋은선린병원 거봉백병원, 맑은샘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 갑을장유병원, 김해복음병원, 진영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제일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바른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청아병원, 365병원, 마산서울병원, CNA서울아동병원, 연세에스병원
경남(23)	진영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제일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바른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청아병원, 365병원, 마산서울병원, CNA서울아동병원, 연세에스병원
제주(4)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총합	15시도 212개소

별\*)표시 기관은 오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4)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 [붙임3]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7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02-3410-2114	38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9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과대학*	02-440-7000	40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2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	02-1577-0083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3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4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5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6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7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4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5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6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7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2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5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3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59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4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0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5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2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650
2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28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2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5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0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6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1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67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2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68	서초구	서초 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3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69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4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0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5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1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36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3)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